

SK, 글로벌 인재 채용 강화

9월1일 전담 인터넷 사이트 개설 ... 인재전쟁 우위 선점

SK그룹은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9월1일 글로벌 인재 채용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상시 채용 포털사이트는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가 지원돼 SK그룹 관계사의 해외법인들은 국적과 지역, 시기와 관계없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느 곳에서든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개인용 PC에서 전담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 국내외 핵심 인재의 신속한 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재 채용 사이트는 영어권과 중국어권 지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언어권별 특성에 맞게 해당 언어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SK에 대한 고용 브랜드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그룹은 200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영학 석사(MBA) 및 해외 연구개발(R&D)분야 석·박사, 중국 우수인력 등 그룹 공채 및 관계사 채용에 인재 채용 사이트를 활용기로 했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국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해 관리하고 글로벌 인력 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Global Talent Management(GTM)를 조직했으며, 미국 주요 기업에서 26년 동안 인력관리 업무를 전담했던 린다 마이어스를 임원으로 영입한 바 있다.

김세대 SK 기업문화부장은 “그룹 가치를 높이려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우수 인재와 SK를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SK그룹의 새로운 채용 인프라를 통해 인재전쟁(Talent War)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6>